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❶ 불복장(佛腹藏)

▶ **구미래 소장은** 불교민속학 박사. 동국대 · 중앙대 · 경기대 외래교수,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조계종 성보보존위원, 백년대계본부 문화창달위원, 불교민속학회 연구이사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공양간의 수행자들』,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한국인의 상징세계』 등이 있다.



성스러운 대상에 담는 간절한 소망

불상의 정수리에서 몸체로

탑과 불상은 모두 부처님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조성된 탑이 자연스레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하면서, 불상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불상은 불멸(佛滅) 이후 5백 년이 지난 1세기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부처님의 형상으로 빚었지만 사리 혹은 이를 대신할 성물(聖物)을 불상에 내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탑에 사리를 모시듯 부처님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봉안함으로써 단순한 조형물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불상에는 정수리에 사리를 모셨는데, 간다라 불상의 육계(肉髻)를 보면 홈을 판 흔적이 있어 사리를 넣은 장치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화는 3~4세기경 서역을 거쳐 중국에까지 전해졌다. 아울러 탑과 불상에 모실 사리를 충당할 수 없게 되면서, 점차 사리를 대체할 물목들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탑에는 법사리(法舍利)인 경전 등을 모시고, 불상의 경우 보배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로 전개된 것이다.

이처럼 불상에 다양한 물목을 모시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몸체 안에 내장하기 시작한 것이 '불복장(佛腹藏)'의 시초이다. 따라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복장작법'은 불상 내부에 여러 물목을 봉안함으로써 예배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을 뜻한다. '복장(腹藏)'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이며, 중국에서는 '장장(裝藏)', 일본에서는 '납입(納入)'이라 부르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의 불복장 사례는 4~6세기에 조성된 아프가니스탄 바미얀의 석불로, 불상 내부에서 사리 · 경전 · 직물 등이 발견되었다. 이후 봉안 물목은 밀교 의식과 결합해 정교한 양상을 띠게 된다. 653년에 한역한 〈다라니집경〉을 보면, "불단의 사방에 번기, 꽃, 방울, 노리개, 거울, 8향 5곡, 오보병, 백개자 등으로 장엄하고 다라니공양 · 꽃공양 · 향공양을 올리면서 의식을 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복장물과 유사하여, 불상을 모실 때 주변을 장엄했던 요소들이 점차 불상 안으로 옮겨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당나라 때 불상 내부에 여러 공양물이 봉안되었고, 9세기에 이르면 오장(五臟) 모형의 복장물이 등장한다. 비단 등으로 간장 · 심장 · 비장 · 폐장 · 신장의 형상을 만들어, 각 장기 안에 생명력을 상징하는 사리 · 옥 · 향 등을 넣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부터 불복장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일본에도 10세기 말의 유물이 전하여, 동북아 삼국에 불복장이 널리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성한 조형물에 물목을 모시는 행위는 예배 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함이자, 인간의 소망을 성스러운 대상에 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탑 · 불상 · 불화 등에 봉안하는 물목 하나하나에는 신도들의 간절한 발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불화를 조성했을 때는 주머니에 넣어 그림에 달아놓게 되는데, 이를 '복장낭(腹藏囊)'이라 부른다.



오방법사들이 오보병에 넣을 물목을 나누는 모습

이러한 종교적 심성은 민간에서도 다르지 않다. 마을에서 정성 들여 쌓은 돌탑에 공동체의 소망이 담긴 상징물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탑 속에 오곡단지를 넣어 풍년을 빌고 쇠스랑을 넣어 재화를 긁어 들이는가 하면, 부적으로 액을 쫓기도 한다. 마을 다리가 지네 형상이면 두꺼비를 만들어 넣음으로써 불길한 기운을 물리치고, 화재가 잦은 마을에서는 숯을 넣어 불기운을 누르며 공동체의 소망을 탑에 담는 것이다.

불교사상의 상징성과 종교적 장엄미 갖춰

우리나라의 불복장은 고려 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더 이른 시기로 766년(혜공왕 2)에 조성된 석남사 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에서도 복장물을 모신 사리 항아리가 발견되었다. 몸체가 아닌 대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불상에 복장물을 내장하는 관념은 통일신라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하는 고려의 불복장은 1274년 이전의 개운사 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열 건이 넘는 사례가 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불복장의 구성을 보면, 몸체의 아래쪽 배에는 직물류 · 다라니를 채우고, 그 위에 경전과 발원문 · 시주질 등의 문서를 두었다. 가슴 부분에는 나무나 은으로 만든 합(盒)을 두고 그 속에 오곡 · 오향 · 오보 · 오약 등을 넣은 오보병(五寶甁), 사리함, 구슬 등을 내장했다. 마지막으로 목 부분에는 동제 방울인 후령(喉鈴)을 두어 소리로써 생명력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큰 틀의 정형성은 고려 때부터 갖추어져,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불복장이 보편화되는 한편으로 법식은 더욱 정교해지기 시작한다. 가장 큰 변화는 '방울'이 '관'으로 바뀐 점이다. 후령이 사라지고 합이 후령통으로 바뀌면서 원통의 뚜껑에 긴 관을 만들어, 내장된 복장물의 생명력이

신성한 조형물에 물목 넣는 행위
소망 성스런 대상에 내장하는 것
하나하나에 간절한 발원들 담겨
지역문화 알리는 타임캡슐 되기도


오보병을 싸는 모습

관을 통해 뻗어나감을 상징하게 되었다.

불복장의 물목과 절차는 다양하고 복잡하면서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다. 내장단계는 오보병→후령통→황초폭자(黃綃幅子)→불상 내부의 네 단계에 걸쳐 백 개에 가까운 물목이 내장된다. 후령통에 내장할 오보병을 조성할 때면, 5명의 오방법사(五方法師)가 둘러앉아서 오곡 · 오보 · 오약 · 오향 등 13가지 물목을 오방색에 따라 다섯 곳에 나누어 넣는 장엄한 의식이 펼쳐진다. 이들 물목은 자연의 일체를 압축해 내장하는 의미를 지니는데, 오보병에 들어가는 물목만 해도 병을 포함해 총 70개에 이른다.

오륜종자에 의해 싹이 튼 보신(報身) · 화신(化身)이 법신(法身)을 상징하는 후령을 울리면, 사리가 오색 기운을 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상징성을 지녔다. 각 방위에 따른 오보병은 종자(種子)의 역할을 하여 중생계에 필요한 곡식과 약과 향 등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사상의 내밀한 상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교한 납입은 종교적 장엄미와 예술성을 지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오늘날 중국과 일본에서는 불상을 조성할 때 점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500년대부터 〈조상경(造像經)〉을 펴내어 독자적인 불복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상경〉은 한국에만 있는 경전으로, 불상 조성의 의미와 함께 불복장 을 위한 설단과 의식, 물목의 종류와 조성절차 등을 정립해놓았다.

전통 법식 또한 중국 · 일본에서는 오장을 모형화한 복장물로 생명력을 드러낸 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오장 대신 후령과 후령통의 상징성을 취했다. 초기에는 목[喉]의 방울[鈴]로 생명력을 드러냈다면, 이후에는 법력으로 내장된 복장물의 생명력이 후령통의 관을 통해 바깥으로 뻗어나감을 상징한 것이다.

현재 의식을 갖추어 행하는 불복장은 우리나라 외에 티베트가 유일하다. 티베트의 경우 수미산이자 불탑을 상징하는 막대에 경전과 다라니를 말아서 몸체에 넣고 향가루를 채우며, 나머지는 모두 좌대에 내장한다. 이때의 물목은 오보병 · 경전 · 다라니뿐만 아니라 칼 · 권총 등의 무기와 지폐 · 동전 · 수저 · 사탕 등으로, 의식에서부터 복장물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성 주체들의 다양한 소망 담긴 '타임캡슐'

불상을 조성하는 일은 불자들의 신앙심이 가장 고조되는 의식이다. 이에 '복장물은 반드시 시주로 채워야 한다'는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신도들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물목의 보시나 사경 등에 참여함으로써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런데 규범적인 불복장과 나란히, 조성 주체의 다양한 바람을 반영한 규범 밖의 물목들을 살필 수 있어 흥미롭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대산 상원사의 목조문수동자좌상에서는 명주 적삼 2점과 세조 대의 회장저고리 등 파격적인 복장물이 나왔다. 회장저고리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저고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뒤쪽에 '장씨소대(長氏小對)'라는 글씨가 있어 저고리 주인이 장씨 성을 지닌 세조의 후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탑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고대의 탑에서 '공양물'이라는 범주 속에 광범위한 내장물을 살필 수 있다. 그 가운데 바늘 · 침통 · 가위 등의 바느질 용구가 발견된 분황사 모전석탑의 사례는 놀라움을 준다. 이들 공양물은 신라 선덕여왕의 것으로, 조성 주체의 열망이 담긴 물품이었다. 탑의 조성목적이 왕권 강화에 있었고, 선덕여왕 스스로 부처와 동일시한 행적의 하나로 자신의 물품을 탑에 내장한 경우라 하겠다.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불복장의 사례를 살필 수 있다. 특히 신도들이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있던 소중한 반지를 빼서 복장물로 넣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법식에 벗어나는 것이지만, 의식을 봉행하는 스님이 신도들의 마음을 수용한 것이다. 타 종교의 성물(聖物)이 내장된 사례도 있었다. 천주교 신자였다가 불교에 귀의한 이가, 발원문과 함께 묵주를 모시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지녔기 때문이다. 발원문 내용에 "십자가 목걸이를 부처님께 바쳐 불가에 귀의함을 증명코자 합니다."라는 구절을 썼듯이, 부처님께 귀의한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담고자 한 것이다.

흥선스님은 김용사 주지로 있을 때 이러한 신도들의 마음을 반영해 불복장을 봉행하였다. 대웅전 불상에 법식대로 물목을 갖춘 뒤, 신도들에게 추가로 넣고 싶은 것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어떤 이는 교통사고로 떠난 자식에게 보내고 싶은 선물을 넣었고, 어떤 이는 자신이 몇 년간 쓴 사경집을 넣었다. 그뿐 아니라 문경지역에서 전승되는 전통한지 · 자수 · 도자기 등을 한 점씩 내장하여, 언젠가 불상을 열었을 때 이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타임캡슐이 되기를 바랐다.

신앙의 대상인 탑과 불상은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수나 개금을 할 때면 수백 년 전의 내장 유물들이 발견되곤 한다. 이에 탑과 불상에서 공예품을 비롯해 경전, 복식, 발원문 · 연기문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될 때마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물 가운데 탑과 불상 출토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내장문화의 문화적 가치 또한 지대하다.

불복장은 더없이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의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앙대상인 불상의 내면에 인간의 간절한 소망을 담는 장치였음을 내장문화의 역사 속에서 살필 수 있었다. 탑과 불상을 조성하고 성물을 모시는 일은 결국 재가자에 의한 신앙의 문제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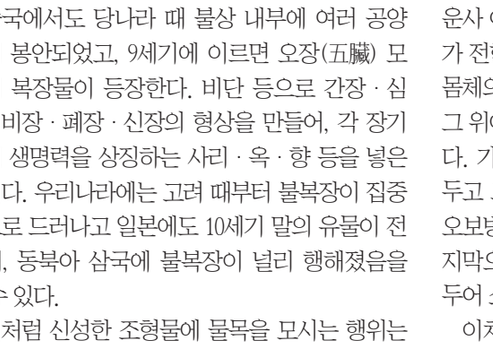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정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대한불교조계종 진불선원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禪 불교대학
제14기 신입생모집
디지털수업 1회+대면수업 1회
대한불교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과의 협약으로
수준높고 체계적이며 다양한 강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2022년 11월~2023년 3월
입 학 식 2023년 3월 4일(토) 오후 2시
주 지 무 아
진불선원·선불교대학
유아어린이청소년법회
문의 및 접수. 055)275-3222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구. 도지사 관사 사거리)
Daum카페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검색하세요!